

e커머스 대격변... 지마켓-알리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美금리 0.25%p ↓
“고용시장 부진”
연내 더 내릴 듯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기준금리를 4.00~4.25%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작년 12월 금리를 낮춘 뒤 9개월 만이다.

파월 연준 의장(사진)은 1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금리를 동결해온 이유는 노동시장이 견조한 모습을 유지했기 때문인데, 5월 이후 수정된 고용지표를 보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다”며 “그 동안의 위험요인이 물가에 치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고용과 물가 두 위험요인이 균형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노동청에 따르면 8월의 비농업 취업자수는 2만2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개월 전인 6월(14만7000명)과 비교하면 12만5000명 감소한 수준이다. 취업자수는 6월 이후 ▲7월 7만3000명에서 ▲8월 2만2000명으로 줄었다.

실업률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실업률은 ▲6월 4.1% ▲7월 4.2% ▲8월 4.3%로 상승했다.

한번 이날 점도표에서 연준위원 19명 가운데 9명은 올해 기준금리가 3.5~3.75%가 적당하다고 답했다. 현 금리에서 동결해야 한다는 위원은 6명 이었으며, 4.00~4.25%에서 2.75~3.00%로 내려야 한다는 위원은 1명이었다.

시장에서는 이에 대해 앞으로 연준이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일부 수용하더라도 고용을 지키는 쪽으로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했다. 명확한 가이드선보다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금리를 결정할 것이라 분석이다.

모건스탠리(MS)는 “공급충격 시기에 고용유지를 위해 인플레이션을 용인해 왔던 파월 의장체제의 연준의 반응습수를 읽을 수 있었다”며 “이는 반드시 중립금리에 도달해야 하는 것도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는 10월 이후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이피모건스(JPM)는 “보먼과 월러(Bowman·Waller) 이사가 0.25%p 인하해 찬성했지만, 점도표 및 정책결정문 가이드선은 10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기에는 매우 강한 경제지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신세계그룹 계열사 지마켓과 알리바 그룹의 알리익스프레스 기업결합이 규제당국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국내 해외직구 시장 1위와 4위 사업자가 손잡으면서 온라인 쇼핑시장 경쟁 구도가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또 정부의 온플법 추진과 맞물리며 e커머스 시장에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신세계와 알리바 그룹이 합작사 ‘그랜드오피스홀딩’을 세워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공동 지배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국내 소비자 데이터 차단을 조건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합은 지마켓이 아폴로코리아가 보유한 지분 100%를 현물출자하고, 알리익스프레스가 합작사 지분 50%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지난 1월 신고가 접수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실질적 경쟁 관계에 있었던 점과 향후 경쟁 제한 가능성을 중점 검토했다.

현재 해외직구 시장 점유율은 알리익스프레스가 37.1%로 1위, 지마켓이 3.9%로 4위다. 결합 후 점유율은 41%에 달하며, 특히 중국발 상품 비중 확대와 알리익스프레스의 국내 확장세를 고려하면 실제 시장 지배력은 더 커질 수 있다고 공정위는 내다봤다.

심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데이터 결합’이었다. 지마켓의 약 5000만명 국내 회원 데이터와 알리익스프레스의 글로벌 소비자 데이터, AI 분석 역량이 결합될 경우 경쟁사들은 막대한 투자 부담과 이용자 이탈에 직면해 신규 진입 장



한강버스 첫 운항 한강버스 개통일인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한강버스 정류장에서 한강버스가 운항하고 있다. /뉴시스

결합 후 해외직구 점유율 41% 데이터 결합 경쟁제한성 우려 공정위, 3년간 분리 조건 부여 온플법 맞물려 시장 판도 주목

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 고착 효과가 강화되고, 개인정보 보호·보안 관리 유인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공정위는 ▲양사 독립 운영 ▲국내 소비자 데이터 기술적 분리 ▲상대방 데이터 활용 금지 ▲우회 제공 차단 등을 명령했다. 이번 시정조치는 3년간 유효하며, 이후 시장 상황을 평가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IT 전문가

가 참여하는 이행감독위원회를 꾸려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은 단순 승인 차원을 넘어 ‘데이터 결합 자체가 경쟁제한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사례다. 향후 빅테크 인수합병 심사뿐 아니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심사에서도 데이터 요소가 핵심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기업결합심사 기준을 개정해 플랫폼 결합에서 데이터 요인을 별도로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외직구 시장은 ‘데이터 축적 → 맞춤형 서비스 강화 →

신규 이용자 유입’으로 이어지는 강한 피드백 구조가 작동한다”며 “두 데이터가 합쳐지면 네트워크 효과가 배가돼 시장 지배력이 크게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 과정에서 데이터가 가진 중요성에 대해 업계도 핵심적인 경쟁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업결합뿐 아니라 다른 유형의 경쟁제한적 행위들을 평가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고려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그룹은 공정위 승인 직후 환영 입장을 내고 알리바바와의 조인트벤처를 공식 출범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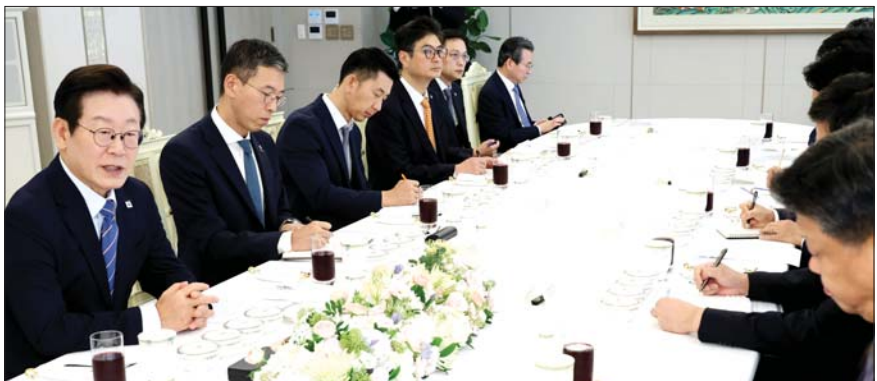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 생기도록 할 것”

李대통령, 리서치 센터장들 만나 ‘코스피 5000 돌파’ 의지 재확인 남북 대립·긴장 완화도 도움 될 듯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을 만나 “누가 ‘국장(국내 증권시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말하던데, 빨리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며 증시 활성화 의지를 다시 보여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자본시장 정상화, 새로운 도약의 시작’이라는 주제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제가 대선 후보 때 정권 교체만 해도 주가지수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3000은 넘길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돼서 다행”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내 경제·금융 현안

청취 및 정책 개선 아이디어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투자업계·자본시장 활성화를 포함한 임기 내 ‘코스피 5000 돌파’

의지를 재확인했다.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실제 국경과 경제 지휘봉을 쥐고 일을 하다 보니 점점 더 증권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 정상화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경제는 합리성이 생명이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몇 가지 핵심 과제들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단 중요한 과제로 꼽았던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주가조작이나 불공정 공시 같은 것들을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며 “그것은 꽤 진척이 돼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3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이 대통령, 마이클 샌델 만나 “평화는 손실 아닌 이익”
▲한미연합사, 연합·합동 의무지원훈련 실시... 한미 24개 부대 참가 /사진 뉴시스

▲최교진 “입시 절대평가 전환, 대체로 공감... 다음 대입 개편까지 준비”
▲한·중 외교회담 당일 북·중 당국자도 북한서 회동

▲이태열 거제시의원 “양대 조선소 지역인재 채용 급하다”
▲이 대통령, 스타트업 만나 “신기술·구산업 충돌, 정치가 역할 해야”